도하 아시안게임 이모저모

펜싱 남현희 "성형 파문으로 더 성숙해졌죠"

"베이징 올림픽 뒤 결혼"

○…한국 여자펜싱의 간판스타 남현희(25·서울시청)가 2006 도하아시안게임 여자 플뢰레 개인전에서 정상에 오른 뒤 성형수술로 자신감을 더 얻었다고 밝혔다.

남현희는 12일 여자 플뢰레 개인전 결승에서 서미정을 누르고 금메달을 차지한 뒤 "성형수술을 한 뒤에는 자신감도 얻게 됐고 경기력도 향상된 것 같다"면서 "말 한마디를 해도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성형하고 싶은 곳이 더 있느냐'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볼 살이 계속해서 빠진다. 많이 먹는 데도 많이 빠진다"면서 웃음을 지었다.

남현희는 올해 초 성형수술 때문에 대표팀 훈련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선수 자격 정지 2년이란 중징계를 받았으나 다행히 징계가 6개월 자격 정지로 완화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 때문에 지난 7일부터 카타르 현지에서 연습하는 시간에도 오래된 연인인 남자 사브르 대표팀의 원우영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을 정도로 오직 훈련에만 매진했다는 것.

남현희는 "여기에 오고 나서 남자친구와는 태릉선수촌에 있을 때보다 더 멀리 했다"면서 "대회가 눈 앞에 있기 때문에 게임만을 우선적으로 생각했다. 욕심이 더 있기 때문에 결혼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이 끝난 뒤에 하고 싶다"고 말했다.

12일 오전 도하 알-아라비 스포츠클럽에서 열린 여자 플뢰레 개인전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딴 남현희가 두손을 들어 관중들에게 답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레인의 루카야 알 가사라가 12일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육상 여자 200m에서 23초19로 우승한 뒤 자국기를 들고 트랙을 돌고 있다. /연합뉴스

故 김형칠 선수 내일 영결식

○…2006 도하아시안게임 승마 대표 선수로 참가했다 불의의 낙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故) 김형칠(47) 선수의 영결식이 14일 치러진다.

대한올림픽위원회(KOC)는 오는 14일 오전 9시 빈소가 차려진 서울 송파구 풍납2동 서울아산병원 영안실에서 영결식을 거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영결식에는 13일 급거 귀국하는 장례위원장 김정길 KOC 위원장과 안덕기 대한승마협회장 등이 참석하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박용성 국제유도연맹(IJF) 회장은 명예 장례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영결식 직후 화장 절차를 거친 고인의 유골은 같은 날 오후 4시 서울 동작구 동작동 서울 국립현충원충혼당에 봉안된다.

고인의 유골이 봉안되는 충혼당은 국립현충원이 묘역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립해 올해 1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유족은 대전 국립현충원 안장과 충혼당 봉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충혼당에는 첫 귀환 국군포로인 고(故) 조창호 예비역 중위를 포함해 현재 458위가 모셔져 있다.

'히잡' 쓰고 女육상 200m 금

○…2006 도하아시안게임에서 히잡을 쓰고 연일 쾌속질주를 펼쳐 화제를 모으고 있는 바레인의 여자 스프린터 루카야 알 가사라(24)가 마침내 금메달을 따냈다.

가사라는 12일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육상 여자 200m에서 23초19로 골인해 구젤 쿠비에바(우즈베키스탄.23초30)를 제치고 우승했다.

여자 100m 동메달에 이어 200m 우승으로 아시아 정상급 스프린터로 이름을 알린 가사라는 "내년 오사카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도 히잡을 쓰고 출전하겠다"며 기염을 토했다.

재미있는 것은 그녀가 쓴 히잡의 '기능성'이다.

가사라는 "히잡을 쓰고 달리면 바람의 영향을 받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소개했다.

알고보니 가사라가 머리에 뒤집어 쓴 히잡은 바람의 방해를 최소화하는 첨단 소재와 디자인으로 만들어졌고, 그녀를 후원하는 유명 스포츠 용품업체가 특수 제작했다고 한다.

KIA 이용규 억대 연봉 합류

프로 2년만에 1억1천만원

외야수 이용규(21·KIA·사진)가 프로 데뷔 2년만에 억대 연봉 대열에 합류했다.

KIA는 12일 "이용규, 윤석민, 한규식 등 3명과 2007년도 연봉 재계약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용규는 이날 KIA 구단 사무실에서 오현표 운영팀장과 만나 지난 시즌 5천500만원에서 100% 인상된 1억1천만원에 재계약했고, 윤석민 역시 4천500만원에서 100% 인상된 9천만원에 도장을 찍었다. 이용규는 올해 구단 내에서 최고의 연봉 인상액을 기록했다.

올 시즌 KIA의 톱타자로 나서 125경기에서 타율 0.318과 39타점, 78득점을 올린 이용규는 전날 열린 2006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3명을 선정하는 외야수 부문 황금 장갑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내야수 한규식은 종전 5천만원에서 4천500만원으로 10% 삭감됐다.

이로써 KIA는 전체 재계약 대상자 54명과 내년 연봉 계약을 매듭지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일고 허세환 감독 '지도자상'

대한야구협 21일 '야구인의 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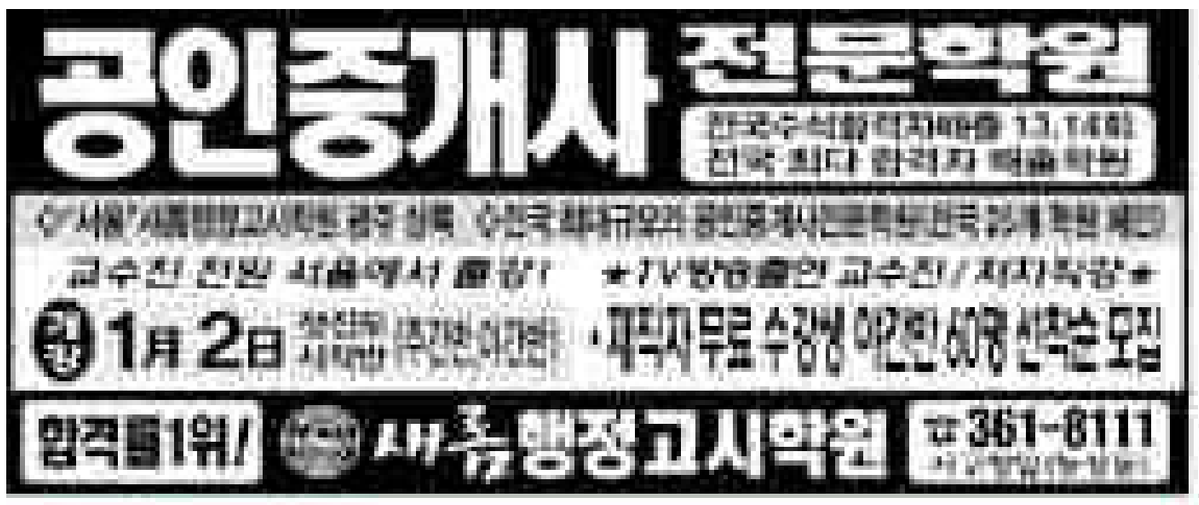
대한야구협회는 오는 21일 오후 6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올해를 마감하는 '야구인의 밤' 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에서는 올해 쿠바에서 열린 제22회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에서 한국이 6년만에 정상을 탈환하는데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한 광주제일고 허세환 감독〈사진〉이 김일배 지도자상을 받는다.

고교 최고 타자에게 주어지는 이영민 타격상은 올해 전국대회에서 타율 0.436(55타수 24안타)의 화끈한 방망이 실력을 뽐낸 덕수정보고 전동수가 차지했다.

이에앞서 광주시 야구협회(회장 박용균)도 오는 18일 오후 6시 주월동 센트럴시티 웨딩홀에서 '2006 야구인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선 올해 김천 전국체전에서 우승을 이끈 광주제일고 허세환 감독과 무등기 우승을 일궈낸 진흥고 박철우 감독이 우수감독상을 받는다. 또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는 진흥고 투수 정영일과 올해 뛰어난 타격감을 뽐낸 나성용이 각각 우수선수상과 우수 타격상을 받을 예정이다.

이밖에 초·중등부에선 동성중 강대성 감독과 수창초교 나길남 감독이 우수감독상에 올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